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진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중 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라
(골로새서 1:21)

발행처: 대한민국 충청남도 서산시 강남구 역삼동 605-1 ☎ 552-8200 팩스 563-3932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진근

'99 여름 계절학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교회학교 21개 부처에서, 7월 5일부터 8월 5일까지

'99 여름 계절학교가 7월 5일 대학부와 장년2부를 시작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열린다.
각 부서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주제로 실시되는 금번 계절학교는 특히, 예년과 달리 정확히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21개 모든 부서에서 치러진다. 이에 따라 몇몇 부서들은 타부서와 공동으로 강사를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감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부서간의 협력과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할 것이다.

각 부서에서는 교회학교 연중 최대의 행사로 꼽히는 여름계절학교를 위해서 현재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부서에 따라서는 이미 장소 답사를 마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성도들은 본인과 자녀들이 금번 여름계절학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힘써 지도로 준비해야 하겠다. 계절학교의 일정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서	기간	장소	주제	강사
영아부	7. 19(월) - 7. 20(화)	선교관 103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요 16:33)	한영준 전도사
유아부	7. 19(월) - 7. 20(화)	교육관 212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요 16:33)	김정자 전도사
유치부	7. 19(월) - 7. 20(화)	교육관 205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요 16:33)	정연희 전도사
유년부	7. 16(금) - 7. 17(토)	교육관 314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요 16:33)	김영자 전도사
초등부	7. 16(금) - 7. 17(토)	교육관 307호 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요 15:22)	송영식 전도사
소년부	7. 26(월) - 7. 27(화)	충현기도원	예수사랑 전하세(롬 10:13-15)	한승일 전도사, 이명희 집사, 김혜정 집사
중등1부	7. 19(월) - 7. 21(수)	충현기도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믿음(골 2:23)	염현일 강도사
중등2부	7. 19(월) - 7. 21(수)	나그네길의 교육관 205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마 25:40)	김인식 목사, 정갑선 목사
중등3부	7. 21(수) - 7. 23(금)	충현기도원	삼자가를 제할라(마 16:24)	권상현 목사
고등부	8. 2(월) - 8. 5(목)	충현기도원	네 신을 받으라(창 35)	조훈환 목사, 조재민 전도사
대학부	7. 5(월) - 7. 8(목)	충현기도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20)	김희복 목사
청년1부	7. 16(금) - 7. 17(토)	금남산부흥기도원	이 산자를 내게 주소서(사 14:12)	이승학 목사
청년2부	7. 16(금) - 7. 17(토)	합동신학원	거룩한 나그네로 사는 청년(렘 21:1-2)	박형동 목사, 전현종 목사
청년3부	7. 16(금) - 7. 17(토)	충현기도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창 4:8)	박형동 목사, 김재정 목사
청년4부	7. 5(월) - 7. 6(화)	합동신학원	다독 더 이루어야 할 구원(골 5:10)	윤영대 목사, 정갑선 목사
청년5부	7. 8(목) - 7. 9(금)	충현기도원	목은 땅을 기경하는 성도(골 10:12)	정현민 목사, 조철수 목사, 이종석 장로
소망부	7. 8(목) - 7. 9(금)	간절리동	믿음을 확증하라(고후 13:5)	이종대 목사, 김인식 목사
신혼가정부	7. 17(토)	교육관 201, 202호	이제 물이 아니요 혼이요... (막 10:8)	조철수 목사
서양부	7. 16(금) - 7. 17(토)	충현기도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요 14:12)	김동서 목사
예배대부	7. 16(금) - 7. 17(토)	교육관 205호	예수님과 함께(마 28:20)	박인기 강도사
영어교육부	7. 16(금) - 7. 17(토)	과천진석군사학교	내가 비록 자취하니(고전 9:19-27)	로빈슨 목사, 김병수 전도사

동서울노의 주교인 여름성경학교 강습회

6월 21-24일, 우리 교회에서

동서울노의 주일학교연합회가 주최하는 여름성경학교 강습회가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열린다. 저녁부흥회 및 각종 다양하고 전문화된 특강이 준비된 금번 강습회를 통하여 많은 교회학교 교사들이 영성과 실력을 쌓을 수 있어야 하겠다. 등록은 강습회 당일에 하면 되고 본 교회 모든 교사들의 참가비는 교회가 지원한다. 일대 등록한 교사들은 가능한한 끝까지 참여하여 배우는 겸손과 성실의 미덕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겠다.

제3차 학습세례식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가호자	영도자	장소	유미세례자	장소
6월 13일 (주일)	12시 15:00-15:50	가호교도	교육관 314호	세례자 (양재현 목사)	가호자	영도자	교육관 307호	유미세례자	장소
6월 20일 (주일)	22시 16:00-16:50	성경인	교육관 314호	교도 (전영준 목사)	가호자	영도자	교육관 307호	유미세례자	장소
6월 27일 (주일)	12시 15:00-16:00	가호교도	교육관 314호	세례자 (양재현 목사)	가호자	영도자	교육관 307호	유미세례자	장소
6월 27일 (주일)	22시 16:00-16:50	성경인	교육관 314호	교도 (전영준 목사)	가호자	영도자	교육관 307호	유미세례자	장소

김영대 선교사 일시 귀국

6월말경 가족과 함께

95년에 귀국한 이후 만 4년 동안 수단에서 헌신적으로 사역해온 김영대 선교사가 일시 귀국한다. 김 선교사는 그간 활발한 사역을 벌이고 헌신하면서 체력이 급격히 약화된 상태에 있던 중 금번에 일시 귀국하여 건강진단과 재출전을 위한 휴식 등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김 선교사와 가족들의 체류기간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지면서 영육간에 간헐한 회복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과 기도가 있어야 하겠다. 한편, 김 선교사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바대영 선교전도사 등이 수단의 현지에 가서 대리 사역을 감당할 예정이다.

교회주변집중전도 평가 및 농어촌전도대 준비모임

6월 17일(목) 오후 6시 30분 만나줄

전도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에 실시된 교회주변 집중전도에 대한 평가 및 '99 하기 농어촌전도대 준비를 위한 모임에 6월 17일(목) 오후 6시 30분에 만나줄 예정이다. 모임대상은 각 교구장과 교구 교역자, 각 교구별 연합전도회 회장 및 부회장들이다.

'99 하기 농어촌전도대

6월 27일에 전도교육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 마 9:35 -

전도위원회와 교구위원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고·대·청의 순수한 신앙과 젊음이 모아져서 매년 실시되는 하기 농어촌전도대는 항상 열매가 풍성하다. 참여하는 지체들의 헌신적인 기도와 성실한 준비, 대가없는 수고와 사랑의 중심성, 그리고 그 위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이 열매를 가능하게 한다. 금년에도 예외없이 각 교구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등에서는 농촌과 낙도 오지로 하기 전도를 떠난다. 금년에도 이들은 경기도를 시작으로 강원도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그리고 여러 섬들과 제주도도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로 방문하기 위해 뜨거운 기도와 성실한 맘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들이 각 지역에서 실시하는 사역은 축복방향을 통한 직접전도사역, 농사보조와 이·미용 봉사, 의료 봉사 등을 통한 간접전도사역, 그리고 연합한 교회들의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계절학교 봉사 등이다.

한편, 전도위원회는 이들의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6월 27일(주일) 오후 3시 30분에 배다나홀에서 전도교육 및 기도회를 가질 예정이다. 금번 하기전도대의 각 교구별, 부서별 일정은 아래와 같다.

교구 및 부서	기간	지역
1교구	7. 26-28	가금교회(송복 중추)
2교구	8. 24	미산교회(강원 평강)
3교구	7. 30-31	우도교회(강남 우도)
5교구	7. 24	새성교회(송복 정원)
6교구	6. 28-30	새성교회(경기 용인)
7교구	8. 10-19	커리교회(경기 광주)
8교구	8. 22-24	전동교회(송남 연가)
9교구	7. 26-29	구장교회(강원 정선)
10교구	7. 21-23	부평교회(강원 안성)
11교구	8. 24	북성교회(강원 영월)
12교구	8. 23-25	동성교회(강원 영월)
13교구	6. 28-7. 1	신명교회(전남 고흥)
14교구	8. 24	세아음교회(경기 연천)
15교구	7. 26-29	세아음교회(경기 원주)
16교구	7. 27-29	새빛교회(강원 원주)
17교구	8. 9	마사리교회(충남 예산)
대학부	7. 26-28	금성교회(경기 개천)
	7. 19-25	도산교회(경기 가평)
	7. 26-30	마산 지역(7개 병영(NMC병영 전도))
	7. 27-29	봉곡방 영이 초소 성경학교
	8. 26	무안로 지역(전남 비전도, 다량도, 하우도, 우도)
		관동교회, 무당교회(전남 고흥)
		소망교회(전남 완도), 천종교회(전북 남원)
청년1부	가금교회(송복 중추)	
	서화교회, 사정교회(경남 통영), 진주세일교회, 모도교회, 라베도교회, 서거차중앙교회, 관내도교회(전남 진도), 삼가교회, 예전교회(전남 해남)	
	유촌교회, 큰리교회(경남 통영), 방하교회(경남 거제)	
8.9.12	두리교회, 내지성교회(전남 통영), 함동교회(경기 광주), 부남남교회(경남 삼천)	
청년2부	6. 21-25	우도교회(경남 통영)
	7. 21-25	경북 경주
	7. 26-29	강원 태백

◆ 각 교구 및 부서, 지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김 창 인 목사

우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

(이사야 43:14-21)

“구속자이신 하나님만이 온전한 왕의 자락을 갖추셨습니다. 우리의 구속자 하나님은 백성을 보호하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모자람이 없도록 보듬어 주시고 역을 함을 당하지 않게 하시면서 연단을 시킨 후에는 상급으로 갚아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민족에게 믿음과 소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그들의 해방을 확언함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줍니다.

1. 인생에게 왜 구속자가 필요하니까

(1)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인생에게 구속자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험하고 우리 인생들은 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시편 91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첫째로 악마가 활동하는 세상입니다. “세 사냥꾼의 울부짖어와...” (시 91:3)

이 세상에는 공기가 없는 곳이 없는 것처럼 악마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악마의 지배는 사람보다 뛰어나고 그 권능은 세상 사람 전부가 달라 붙어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강합니다. 악마의 수단과 방법이 너무 뛰어나서 어떤 때에는 천사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어떤 때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악마는 잔인하여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삼습니다. 이런 악마가 설치고 있으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험합니다.

둘째로 질병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극한 열병에서... 흑암 중에 행하는 열병과...” (시 91:3, 6) 셋째로 실패가 많은 세상입니다.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시 91:6)

세상에서 성공하기만 하늘의 별따기처럼 힘이 들지만 실패하려면 삼시간에 끝나고 맙니다.

넷째로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체면을 지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심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또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심은 어디에 버렸는지 몰라도 사람의 눈에 보이는 체면만은 결코라도 지키는 체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의 체면까지 쟁개치고 되는 대로 삽니다. 믿는다는 교인을 중에도 하나님을 무시위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 더 갑니다. 믿음과 양심과 체면을 버린 세상에서 체면과 양심과 믿음을 지키지 않는 신자는 손해를 보고 바로 취급을 당하고 물질에 손해를 받게 됩니다.

이런 험한 세상에서 신자가 믿음과 양심과 체면을 지키려면 전쟁에 나가는 군인의 각오를 가지고 싸우라는 자제가 필요합니다. 전쟁에 나가 싸우는 군인은 추위와 더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굶기도 하는 무수한 고생을 당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결과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큼니다. 싸움에 이기면 영광스럽고 자유가 있고 재산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싸움에 지면 영광이 부끄러움으로 변하고 자유를 누리던 자가 종살이를 하게 되고 부자가 거지가 되고 생명이 죽습니다.

신자가 세상에서 양심과 믿음을 지키려면 악마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양심과 믿음을 팔게되고 나면 마귀와 타협하고 마귀의 앞잡이가 되고 맙니다. 양심을 지킨다는 말은 마귀와 싸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싸우려면 위험을 무릎써야 합니다.

(2) 인생이 악하기 때문에 구속자가 필요합니다

험한 세상에 비해 인생은 너무나 약합니다. 몸도 약하여 병에 걸립니다. 마음도 약하여 달 한 방에 흔들립니다. 믿음도 약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유혹이나 공갈에 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잘났다고 우물거려다 실수하는 때가 많습니니다. 옳은 말을 한다면서 남의 마음에 감을 쏘는 때도 많고 본의 아니게 잘못을 저지릅니다. 이처럼 인간은 약하고 어리석고 죄악의 때가 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약한 인생을 구원해 주실 구속자가 계시어야 합니다.

2. 구속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1) 구속자의 성격은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진실합니다

“... 거룩함과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 41:10)

하나님은 죄악과는 상관이 없는 분이요 거룩하고 자비하십니다. 그리고 진실하시어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절대로 거짓말을 안하십니다.

(2) 구속자의 실력은 전능하십니다

첫째로 창조주이십니다. “... 이스라엘의 창조주요...” (사 41:10) 구속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나의 영혼과 육신을 창조하셨습니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둘째로 왕이십니다.

“... 너희 왕이라” (사 41:15)

구속자는 왕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오늘날 세계에는 수많은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정한 통치자의 자락을 모두 갖추고 있느냐고 물으면 그렇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왕이 갖추어야 할 몇 가지 자격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먼저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 백성의 생활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격을 갖춘 왕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만이 온전한 왕의 자락을 갖추셨습니다. 우리의 구속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의로운 길로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백성에게 모자람이 없도록 보듬어 주시고 자기 백성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하시면서 연단을 시킨 후에는 상급으로 갚아 주십니다.

셋째로 구속자께서는 새 일을 행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사 41:19)

하나님은 옛날에는 일을 잘하셨으나 지금은 그렇지 못한 분이 아니시며 옛날에 하던 일만 되풀이하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계획하여 실행하는 분이십니다.

(3) 구속자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 정녕히 내가 땅에서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내가 정녕히 곧 시랑과 밭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땅에서 물들을 사막에 강들을 내니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사 41:19)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물을 주셨고 또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의 구속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죄악의 때가 묻고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여 지옥의 죄수인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3. 구속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 하나님만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2) 자신의 사정을 내어 놓고 의논해야 합니다

우물쭈물하지 말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의논해야 합니다. 잘하였거나 못하였거나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고 하나님과 의논해야 합니다.

(3)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내일 봅시다” 혹은 “싫습니다” 그러지 말고 “예, 하겠습니까” 하고 정성을 다하다가 모자라면 일드러 울지언정 순종합니다. “안될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말고 순종하다가 힘이 모자라면 일드러 울면 하나님은 성품의 깃발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손에 틀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못하겠다고 미리 말 버둥치며 다른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람의 방법이며 어렵지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므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4) 하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여, 예수님을 믿으시라” “진생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저녁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내가 누구에게 전도를 해야 하였나를 결정한 다음에는 그 사명을 위하여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큰 많이 버렸습니다. 나는 인물이 예쁘다” 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구속자 하나님뿐입니다. 말과 행실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4.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오늘까지 내가 바로 산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무슨 죄를 범할지 모릅니다. 오늘까지 내가 바로 살았어도 하나님의 은혜이니 감사할 것뿐입니다. 내일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이니 나는 쓰러집니다. “하나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세상이니 나를 떠나거나 버려주세요” 라고 울면서 주을소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악마의 손과 죄악의 용덩이와 무수한 질병과 악한 사람의 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함을 얻고 우리의 육신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믿고 감사하고 나의 모든 사정을 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면서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관 목사

나는 누구입니까

(요한일서 3:1-3)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누구입니까?’ 저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여러분이 아시듯이 김성관입니다. 그러나 이 이름은 제가 누구인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름은 나에게 붙은 상표와 같아서 선행 내가 이름을 바꾼다고 해도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저는 한국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지는 너무나 불충분합니다. 이것은 단지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정보에 불과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 키와 몸무게를 말해 준다고 해도 여러분은 그것을 통해서 제가 누구인지를 알았다고 확신할 수 없으실 겁니다. 우리는 이름으로도, 국적으로도, 신체적인 수치로도 내가 누구인지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다른 사람을 아는 방식 중 하나는 ‘직업’입니다. 세상에서 분류하는 직업이라는 면에서 볼 때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내일부터 배관공이 된다면 그것이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직업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로교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일 다른 교단의 교인으로 교단을 바꾼다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사실에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무관한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어떤 객관적인 분류를 위한 상표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우리의 정체성과 무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다수는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러 남에 대하여 생각할 때, 내가 누구이고 그가 누구인가를 판단하고 이해하는 모든 권점을 이것들에 의해서 결정하는 습관입니다. 성공한 사람이라요? 그가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면에서 그의 정체성을 밝혀주니까? 성공이란 뭘까? 도둑 잡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 손안에 있거나 모으나 내일이 다른 사람에게는로 넘어가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것은 ‘나’를 대변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이 과거에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어놓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역식 슬픈 메아리와 허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꼭두각시 인생

진실로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모든 걸치레를, 우리들 앞뒤에 둘러싸고 있는 상표들을 때

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되고 수많은 돈을 끌어 모으고, 좋은 직장을 얻고 유명해지고 대단한 명성을 소유한들 그것들이 여러분의 ‘생명’ 그 자체와 얼마나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절대적으로 무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결과들의 정체성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게끔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혹은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성공하라고 합니다. 뛰어나라고 합니다. 뒤지면 큰일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모든 정력과 지혜를 쏟아부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문제에 대하여 바르게 알지 못하는 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는 한 이

들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 비참한 인생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채로 마구 달려가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완전한 만족을 줄 만한 성공을 향해 끊임없는 긴장과 갈망 속에서 달려가지만,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항상 저 멀리에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결코 그것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만족은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정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표로 자신의 자신됨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은 재산과 안정된 직업과 뛰어난 학력으로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드러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지 마십시오. 불행은 자초할 뿐입니다.

자녀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배부신 그 ‘어떠한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깊이깊이 새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영결하는 자 곧 이름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성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요 1:12-13). 맞습니다. 우리는 내세울 만한 혈통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상할 수 있는 최고의 혈통을 가지고 난 한 마디 앞에만 간들,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한 마디의 관정지 내려질 뿐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우리가 욕정, 곧 최고의 학력을 가지고서 내린 선택과 결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들,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한 마디의 관정이 내려질 뿐입니다. ‘나는 무지하다!’

누군가 우리에게 ‘너는 누구인가?’ 라고 묻는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대답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진실로 놀랍기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보다 더

명쾌하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야 합니다.

위대한 약속들

사도 요한은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소개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너는 누구인가?’ 라고 묻는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대답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겠습니까? ‘소금과 빛의 존재’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질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마 5:13-14).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해하도록 가르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고전 6:17).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골 3:12).

은혜 안에서 밝혀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대하여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언가를 소유하고 갖추으로써 자기 자신 안에서 영원한 의미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는 사실 빛이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미암아 우리는 ‘내가 비로소 내가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고전 15:10). 여기에 서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누구냐’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비로소 우리의 존재됨이 밝혀지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고, 우리가 그러하도다”(요한 3:1).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조건, 우리가 걸치고 있는 어떤 상표가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죄함과 추구들은 전적으로 무가치한 잡동사니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은 오히려 우리들을 혼돈과 두려움에 빠뜨립니다. 우리들을 꼭두각시로 만듭니다.

그것이 성공입니까

무대 위를 오색거울처럼 걸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 옷에 묻은 얼룩을 발견하는 순간 혼비백산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실패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공과 실패는 이런 식입니다. 손바닥을 뒤집으면 우리 그런 알파한 ‘자기 정체성’ 속에서 돌아와 있습니다. 심지어 나라는 정지인한 채 서있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권력의 함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는 죄의 꼭두각시, 정욕의 노예일 뿐입니다.

만족없는 긴장과 갈망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모든 사람

자녀로 살아가는 삶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진실로 놀랍기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보다 더 명쾌하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때, 우리는 목사요, 의사요, 상인이요, 학생으로, 그리고 주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야 합니다.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이 귀한 은총이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

세계 선교

무늬만 헌금은 아닌지요 ...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와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신 16:17)

올 여름은 꽃무늬 원피스가 유행이라고 한다. 색색의 꽃무늬가 거리를 화려하게 수놓을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기분이 상쾌해진다. 원피스에 곱게 물들어 있는 색색의 꽃을 보고 우리는 꽃이라 하지 않고 꽃무늬라고 한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저 모양만 같을 뿐 본질이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개인헌금, 혹은 무늬만 헌금은 아닌지 몇 가지 체크해 보자.

1. 개인적으로 직접 송금하여 받는 사람의 통장에 헌금자의 이름이 성명하게 기입되는 것을 상상하며 기뻐한다.
2. 교회를 통해서 헌금하지만 개인적으로 전화하여 확인한다. "언제, 얼마를 보냈는데 받으셨습니까?" 은 근근히 고맙다는 인사말을 기대하며.
3. 개인적으로 제정보고서를 받아 감동자의 기분을 내보기도 한다.
4. 간혹 헌금을 받은 분한테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어러울 때 도왔는데 사람이 변했어..."
5. 굳이 자랑하려는 마음은 아니지만 사람들 앞에서 가끔 이야기한다.

위의 경우는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이 물건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하지 않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물질을 좋은 일에 나누는 생각을 기조로 한 것이다. 만약 이런 자세로 헌금을 한다면 받는 이들은 필연히 배를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

험하면서 많은 사역에 더욱 힘써야 할 시간에 후원자란 단 한 사람에서 헌금자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여러 모로 표현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한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개인 헌금방식을 지명헌금제도도 하여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자 한다. 지명헌금제도란 모든 헌금을 교회 통을 통하여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개인 또는 교회, 각 진도회에서는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 목적을 위해 드러지는 헌금은 지명헌금제도도 따라 교회를 통하여 헌금하여 주기 바란다.

지명헌금 하는 방법

(예) 단기선교에 후원하고 싶을 때 (금회, 교육, 교역반, 이웃 장학회 기입)

헌 금	
☐ 일반조헌금 ☐ 전속헌금 ☐ 감사헌금 ☐ 생일헌금 ☐ 장로헌금 ☐ 장학헌금 ☐ 순회헌금 ☐ 특별헌금 ☐ 전교회헌금 ☐ 기타 기탁헌금 ☐ 단기선교 ☐ 특별헌금	
금회	교역번호
이름: _____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교회	

◆ 모아진 지명헌금은 교회의 이름으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송금된다. 송금 확인은 사무국(회계과)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웃 사랑

자원봉사 활동
시작이 반입니다

흔히들 '자원봉사'라 하면 부담스러워하거나 혹은 '내가 어떻게 남을 도와' 하는 식의 생각으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작은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돌아보면 함께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일들이 많다. 선전국의 경우 18세 이상 성인 중 약 51%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도 자료에 의하면 0.1%만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와는 다른 형태의 사람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삶의 기쁨과 보람을 체험을 통해 느껴 보길 바란다.



△ 자원봉사 선생님들과 함께 종이접기를 하며 즐거워하는 복지관 훈련생들

1. 자원봉사란 삶의 행복을 방해하는 모든 사회 문제를 더불어 해결하고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자신이 가진 전문지식·기술·재능·시간 등을 아무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인간의 가장 고귀한 가치 실현 행위이다.
2. 누가 자원봉사를 하는가
종교·연령·학력·지역의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에 눈을 열고 가슴 따뜻한 사람이면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이르기까지 누구나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3. 자원봉사는 왜 필요한가
지역사회 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 함께 참여하고 이웃끼리 도움으로써 공적, 제도적 서비스의 한계를 다스려야 해결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4.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
자원봉사 활동에 관심한 요면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이라도 다른 사람의 어려운 일을 돕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산과 강, 공원을 깨끗이 하는 일, 자연 보호 활동, 건전하고 창의적인 어른 조성을 위한 방송 모니터 활동, 농촌 일손 돕기, 바쁜 어린이로 키우기 위한 폭력·저절 비디오 우방 운동, 청소년에게 건전한 가치관을 심어 주기 위한 상담 활동, 관청·병원·도서관·박물관 등의 기관에서의 입부 보조, 보육원, 양로원, 재활원 등에서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기, 도시 빈민, 단장촌, 국제 난민을 위한 모금 운동 등을 우리가 해야 할 보람 있는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관심과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복지관에는 가정주부에서부터, 대학생, 직장인 등 100여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투입되어 보조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캠프, 학습 지도, 행정 업무 지원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 관심 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5. 정시제인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자의 미용기 및 태도

차량으로 선교에 동참하실
자가용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선교위원회 소속인 국내외국인선교부 사역에서는 차량으로 봉사하실 분을 필요로 합니다. 처음에는 몇 안 되는 지역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사역이 활발해지면서 범위가 확대되었고, 본 교회 출신 외국인들의 이력으로 차량운행 코스가 광범위해지면서 현재 운행하는 차량으로는 부족함을 겪고 있습니다. 외선부에서는 차량으로 선교사역에 동역자가 되어 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 횟수는 주일 하루 두 번이고 (오전 9시 30분까지 교회 도착, 오후 2시 20분에 교회 출발), 오전과 오후를 따로따로 봉사해 주셔도 됩니다. 지역은 경기도 수지구와 광주, 의정부, 일산 등 경기도 일대입니다. 운송차, 승합차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선교위원회로 문의해 주세요.

선교위원회(선교관 406호) / 전화 552-8200(교한 356-8)

모국방문 입양인 초청
-민박기정 신청-

국외로 입양되어 간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뿌리를 찾아 모국을 방문합니다. 우리 교회는 홀트재단과 연계해서 입양인들에게 한국인들의 가정생활을 체험하게 하여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 주며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에 민박할 가정을 모집하오니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초청방법 : 1999년 7월 3일(토) 오후 4시~4일(주일) 오후 3시 신청방식 : 선교위원회(선교관 406호)로 직접 방문 신청

접 수 : 6월 20일(다름) 주일까지

전화문의 : 552-8200(교한 356-8)

- 1) 동정보다는 충분한 이해와 지속적인 노력에 뒷받침되는 사랑의 관계를 형성한다.
- 2) 나이에 맞는 인격적인 대우와 예절을 갖추어 대한다.
- 3) 먼저 정신지체인이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어느 정도 하는지, 흥미는 무엇인지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 4) 가능한 일과 어려워하는 일을 구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 5) 한꺼번에 많은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며 단계별로 반복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지관 자원봉사 문의 및 상담
: 지역사회개발팀(565-75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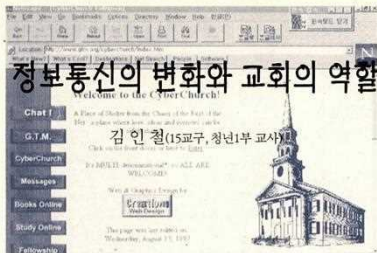
(한정혜)

교회 주변 사랑의 청소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루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 5:16-



에서 매년 실시되고 있다. 성도들은 바쁜 시간을 쪼개어 연합된 마음으로 열심히 청소를 하였다.



정보통신의 변화와 교회의 역할

요즘을 매일 필처드는 신문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를 아십니까? IMF? 아닙니다. 인터넷이지요. 인터넷 통신, 인터넷 비즈니스, 인터넷 상점, 인터넷 홈페이지 등 신문에는 매일 인터넷 이야기가 넘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97년 기준으로 이미 3,100만 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미 220만 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자신도 방금 언급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찾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도 정보 검색 뿐 아니라 전자우편, 게임, 상거래, 홍보, 교육 등 정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더욱 많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문화 및 과학적 발전, 창작자들을 누리고 확대하는 데 많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온 데 반해 인터넷에서는 이런 제약이 전혀 없이 사비며 공간이라는 곳에서 재창조되어 가고 있고 누려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병원, 학교, 회사, 미술관 심지어 교회도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자신의 시간을 보내고 공간적인 제약 없이 문화를 향유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에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 우리의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사비며 공간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무관한 것이 아닌 에수를 전해야 하는 새로운 영역·가야 할 땅·공으로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믿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이를 이해하고 정복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그곳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에수를 전할 기회를 잃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한 것은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은 이를 잘 인식하고 미적지나나 준비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의 노력과 돈을 투자해 선교의 장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꾸렸고 영문페이지를 포함해 이를 어떻게 계속해서 잘 확대할지를 논의하는 모임도 있습니다. 너무 앞서지도 말고 너무 뒤처지지도 말라고 가르쳐서는 원로목사님의 훌륭한 문화에 대한 지침이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 뒤처지는 쪽으로 기울지 않기를 아울러 기도합니다.

Y2K와 그리스도인(1)

1. Y2K란?
2. Y2K와 발생가능한 문제들
3. Y2K를 대비하는 그리스도

Y2K는 '2천년'을 요약해서 표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2000년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본래, 1964년까지 만든 컴퓨터는 연도를 표기할 때에 4자리로 표기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988년이면 1988 모두를 인식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1970년대를 전후해서는 컴퓨터의 기억용량을 늘리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연도표기의 네 자리 중 끝의 두 자리를 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 1988년이면 뒤의 88만 인식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컴퓨터는 2000년을 1900년과 똑같이 00으로 인식하게 되어 100년의 시차를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1901년생의 나이와 2001년생의 나이가 같아지거나, 2000년 1월이 만기인 적금이 1900년 1월이 되어 찾아버린 돈으로 변산되는 불상사들이 끊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조작되는 모든 기계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하는 것입니다. 사실 끝의 두 자리를만 인식하도록 만든 컴퓨터 관련자들은 2000년이 되지 전에 누군가가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해 주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재촉 세월이 흘러 버린 것입니다.

Y2K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역사 낙관주의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컴퓨터로 대표되는 과학문명의 엄청난 발전속도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웅변한 문제들은 이러한 기계적 조작을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술의 신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조상들이 사냥·채집에서 벽돌을 발명하고 역경이용방법을 발견했을 당시의 역사나관론과 현대의 기술의지적 현상은 거의 같은 것입니다. 최근, 유전자 조작을 통해 만든 사료를 먹은 동물들이 기형적으로 변하는 증거들이 나오며 누군가가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해 주리라 기대한 마음도 허망해집니다. Y2K로 인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들은 낙관주의자가 되어야도 안되고 비관주의자가 되어도 안되고 싶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편집)



성경적인 경제원리

차 신 (독자, 감사위원장)

그리스도인들도 삶의 현장에서 경제 문제로 고민할 때가 많다. 돈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기도 하고 있는 분들도 그 나름대로 적은 재산을 가지고 무엇에 해야 보다 잘살 수 있을지 고민한다. 모두가 보다 나은 경제적 형편을 꿈꾸는 지극히 당연한 심정이지요.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는 자기 소유한 물질에 대해 지대한 관심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에수님은 한 달란트 받았다가 그 대로 가서는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시면서 벌리라고 받는 것이 나올 것을 지적하셨다. 이바라함은 물질의 미혹한 믿음의 조짐들을 보며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과 그로서만도 성경은 많은 곳에서 부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다.

달란트 창시자 요한 에술리는 재물에 대하여 3원칙을 주장했다. 즉 힘써 벌라, 힘써 저축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나눠 쓰라. 에술리는 부요한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데 동의했으나 부요는 교만, 분노, 욕망 등 증가시킬 뿐으로 보고 부요로 말미암아 물라하게 될 것을 경고했다.

우리가 에술리의 말이 마음에 힘써 벌고 저축하는 데는 동의할 것이나 나쁘게 쓰는데도 그러할까? 에수님 앞에 나와 질문했던 젊은 청년이 슬픈 기록을 떠고 근심하며 돌아간 것도 세번씩 과제를 받아들이 수 없

었기 때문이었다.

재산 증식을 위해 골몰하고 있는 분들이 힘써 벌라는 부분에서 유념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에 대하여 전혀 수고하지 않고 거저 벌라고 하는 군은 사람으로 잘못 생각한 것 때문에 책망받았다.

주님은 심고 헤치는(추수할 곡식을 기질하여) 곡식과 거를 따로 모으는 수고를 원하고 계시고 이것도 싫으면 은행에 맡겨 이자라도 받는 것이 타당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벌려야 함에 대해 '내가 일년에 땅이 출라야 식물을 먹을 수 있다' (창 3:19) 라고 말씀하신 대로 땅을 밟는 것만 수고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원리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 이상의 대가를 바라라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 아닐까. 또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제4계명 '옛날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그 날에 네 모든 일의 하나님 여호와께의 안식일 즉 하루 일도 하지 말라' (출 20:9-10) 는 주일성수의 정신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재물을 벌고 저축하는 것도 어렵지만 바로 쓰는 것은 더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유는 바로 내 자신이 원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재물보다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을 하나님께 원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재물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재물에 대한 창치기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이다.

영의 하나님께 드리는 십일조 정신, 이웃을 생각하는 구제의 정신, 자신에 대해서는 겸손한 절제의 정신, 이 세 가지의 물질을 맡은 창치기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2교구의 심점례 성도님(71세)은 뇌출혈로 쓰러져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현재 회복 중입니다. 3교구의 김경호 어린이(11세)는 입과신도요 현재 주 5일씩 병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황당중세로 고통당하고 있는 홍순구 집사님과 암세포가 뼈에 전이되어 고통당하고 있는 김재경 집사님도 기꺼워 주시길 바랍니다. 6교구의 윤영형 군(32)은 장결핵이라는 희귀한 병에 걸려서 구토와 어지럼, 설사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7교구의 이순제 성도님은 신부전으로 인해 매일 머리 차례씩 투석을 하면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세웅 어린이(3세)는 계속되는 고열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8교구의 전용태 집사님은 지난 번 추락 사고 후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김영자 집사님은 지난 토요일 화재로 인해 방 한칸만 빼고 집안 전부가 타버렸습니다. 11교구의 임성진 어린이는 뼈 골수암 수술 후 현재는 3주마다 항암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용순 집사님은 위수술 후 자택에서 요양 중이며, 이기찬 집사님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요양 중입니다. 12교구의 박종민 집사님은 뇌종양으로, 김정현 성도님은 대장암으로, 신부전성 집사님은 위암으로, 김진숙 성도님은 고혈압성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13교구의 임낙준 집사님은 당뇨합병증으로 뇌혈관이 막혀 언어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우리의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어찌든 이들의 고통과병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은운을 일깨워 드리는지도 모릅니다. 기도하는 시간마다 은운을 다해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가정의 중심축으로 되살아나는 믿음의 가정들
2교구 3지역 남성도구역



우리 교회에는 남성들을 위한 남성도구역예배가 있다. 사회생활을 하는 남성들의 예배를 돕기 위해 특별히 구성된 조직인데 대개는 남성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중 2교구 3지역 남성도구역을 찾았다. 이 구역은 남성도구역이란 명칭에 관계 없이 남성들과 함께 그 아내들이 모두 참여하여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이 구역이야말로 굳이 남성들이 여성이든 구분하지 않아도 좋은 그야말로 완전한 구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 구역원은 이 구역을 '용장 밑에 용병이 있다'는 한 마디 말로 압축하여 표현한다. 풀이하면 현실적인 구역장(이수철 집사)과 순종하는 구역원이 있기에 이 구역이 든든하게 서 갈 수 있다는 말이다. 구역장은 바랄만한 남성구역의 조건을 우선 모이는 구역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구역원들을 모으는 데 힘을 쓴다고 했다. 일단 모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 이러한 구역장의 충성심과 노력으로 지금은 잘 모이는 구역으로 성장하였다. 구역장은 그 공을 구역 식구들의 믿음으로 돌렸다.

구역원은 아기를 태리고 온 30대에서 60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기에 서로에게 보여 주는 관심은 각별하다. 각각 다른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

부부공동체가 필요하다

가정사역자들 중에는 교회가 각 가정의 지체들을 위한 가족(?)으로 만들고 있다는 조심스런 접근을 하는 이들이 있다. 주일이 되면 대부분의 가족들은 교회 도착 즉시 각 부처로 흩어지게 한다. 교회의 특별한 역할 그 한해 도에서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공부하는 모임들이 차차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두 곳의 모임을 찾았다.

이 모여 주님께 영향을 돌리고 성도간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모임이 여성구역예배에만 익숙한 우리에게 신선한 감동을 안겨 주었다. 주일인들 지친 무릎을 꿇은 순례한 자들의 예배를 기념하시지 않으시라. 이들은 사회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믿음에 절대가치를 두고 살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믿음생활을 잘해야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다는 신념에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덜 자고 덜 쉬고 는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것밖에 있는 길 이 없다는 단순한 방법을 제시한다. 그 부지런함이 이 분들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신실한 사회인으로 세우려는 비결이다. 이들 믿음의 가정들이 가정의 중심축이 되어서 살아갈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선한 교회가 된다.

이제 교회는 남성도구역에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 같다. 이들은 한 달에 한번씩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그 치지 말고 남성도구역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2교구 3지역 남성도구역에서 우리는 희망을 본다. 가정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가정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든든히 서 갈 것이다. (염연희 기자)

가브리엘찬양대 분당식구 부부모임

언제부터 — 가브리엘찬양대 내에 분당식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97년도 초부터 5-6가정이 격월로 모이기 시작했다. 현재는 11가정이 모이는 데, 올해부터는 3개월에 한번씩 모인다.

어디에서 — 전에는 각 가정 별로 돌아가면서 모였고, 요즘엔 배를 식당 같은 데서 토요일 저녁시간을 이용해 모인다.

모임목적 — 일단은 성도의 신앙에 중심이다. 서로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교제할 기회와 격려를 받는다. 그리고 자녀문제나 사누의 이야기, 건강에 관한 이야기들을 기도제목으로 나누고 함께 기도한다. 그리고 때로는 젊은 마음으로 돌아가서 게임을 하기도 한다. 가브리엘찬양대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종류의 스코틀 모임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 같다.

분위기가 — 일단 한 쌍의 젊은 부부를 제외하면 4-50대가 주류이므로, 분위기는 차분하고 안정적이다. 그리고 서로 존중하면서 편안한 대화들을 나누는 평화로운 분위기다.

속제는 — 앞으로 이 모임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복된 공동체가 되는 것. 그리고 혹시라도 가브리엘찬양대의 다른 식구들에게 전달만큼의 위화감(?)도 주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한 복소리도 이루어져서 올려지는 찬양이 더욱 힘차고 아름답길.



'99 암깨이는 청년 행사를 마치고
우리 모두 하나되어 세계로!



메리키아 모이다. 꼭꼭 숨어라?

청년1부 주일 평균 출석 인원은 350명. 우리 교회 20대 연령층의 전체 인원은 2000여명. 도대체 어디로 다 숨어버린 걸까? 우리가 함께 모여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은데, 나도 몇 오지 국내 사역과 세계 선교를 위해 우리는 모이고 함께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집'으로 돌아오라. 그래서 늘 문 앞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청년'을 하기로 했다.

행동강령-화금 작전!

모든 일을 하든지 사람의 일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행동강령으로 중요한 새벽기도회와 금요집회에 모두 참석하기로 했다. 이를하여 '화금 작전'! 집이 먼 지체들을 위해 필요할 저녁에 사랑방, 유아부들이 장자리를 마련해 놓고 새벽을 깨우기로 했다. 점점 많은 지체들이 이 기도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새벽기도 후 모두 동그렇게 손을 잡고 한바탕 찬양을 올리게 되었다. 이제 밤에 떠날 때인 아침에 빛나고 우리는 또 각자의 일터로 흩어졌다.



알뜰시장에서 판매할 기증물품을 접수받고 물건을 실러오 가고 정리하고 물품 리스트를 작성하는데 거의 한달간 매일 교회에 출근한 지체들이 수고를 하였다. 또분분 들어오는 물품들에 격조도 되었지만 매우 교구모임에 예배주에 열심히 알린 덕분에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셔서 점점 우리들의 물품 창고는 가득 채워져 갔다. 교사들은 알뜰시장에서 열릴 먹거리 마당을 위해 밤을 새며 재료를 준비하고 교구 집사님들까지 총동원되며 절친의 그날만을 기다렸다. 신임부 리더들은 테이블 위에 종이 꽃과 화병으로, 기동엔 여러 가지

장식을 하며 만찬을 예쁘게 꾸미며 근사한 찾집으로 만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라-홈 컴데이
(homecoming day)



자, 각 팀의 장기결석자는 누구지? 또 이번엔 새로 전도하고픈 친구는 누가 있지? 기도하고 전화하고 열심히 보내고 우리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보자. 팀장은 조장을, 조장은 조원들을, 조원들은 잘 안 나오거나 평소에도 전도하고 싶었던 친구들을 위해, 이중 삼중 그물처럼 청년들은 마음과 행동을 다해 열려나 하였다. 전화하면서 평소에도 이렇게 하자 못함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생기게 되었다. 여기저기에서 전화를 받은 많은 지체들은 한꺼번에 쏟아지는 관심으로 어리둥절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예매한 트러가 같은 도래들이 한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청년 공동체의 이름다운 교제를 바라보며 마음이 흔들렸을까?

드디어 그날이!

일주일내내 흐리리리 날씨가 토요일 아침, 거짓말같이 환하게 개었다. 아침내

내 분주하게 알뜰시장과 일일찾집을 준비하던 손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개회예배를 드리고 드디어 '99 함께하는 청년 행사'가 시작되었다. 원길자 부감간의 '길자(자) 남편'의 폭발적인 인기와 손으로 직접 만든 돈가스, 김밥, 정갈한 맛있는 매시즈, 커피, 과일 진주로 만든 세울 진주목걸이, 짜다 새 멋진 의류들, 가방, 신상한 멜치, 미역, 가전제품, 문구류, 생활용품, 가득 채워진 모든 다 팔린 농산품들... 북적북적 많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중·고등학교생들의 발걸음, 무엇보다 평소엔 관심도 없던 청년지체들의 적극적 지원분사로 온종일 문은 녹초가 되었지만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했다.

주일 — 과연 될까 하는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 도우소서' 했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셨다. 5층 청년부 집회실이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가득가득 차고 넘쳐서 발디딤 틈도 없었다. 목사님의 설교, 드림과, 동기 모임, 정갈을 가 격정해서 눈물줄기까지 기동했던 지체들이 여기저기서 애착한 듯 웃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는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행사가 끝나고 모든 사역자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소서. 더 의식하고 불평하고 불만했던 것 용서하여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심을 감사드립니다." 청년1부는 앞으로 또 '화금 작전'을 계속할 것이다. 나이가 되어 복음의 소지되지 낙도와 오지, 저기 이방민족에게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수경 기자)

지체들 소식 / 물매들

지체들 소식

영아부
어름성경학교 준비중으로

지난 주일에는 어름성경학교의 말씀과 찬양과 만물기 등 다양한 시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처장과 과장들의 준비 모임이 있었다. 특별히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정리하기 위하여 특강 준비에 각별히 많은 신경을 쏟았다. 돌아오는 어름성경학교를 통해 보다 새롭게 변화되는 영아부의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린다. (송혜경 통신원)

유아부
사랑의 말 하는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

5월부터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 고쳐 주신 일화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귀신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해 주신 것을 배웠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참 많지요.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는 병, 우리 하나님께서 다 고쳐 주신 것, 우리 어린이들이 배운 대로 그 깨끗한 심령에 그대로 새겨 주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예쁘게 말 못하는 사람, 남에게 상처주는 말 잘하는 사람 말고, 진짜 하나님 자녀답게 사랑의 말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기 바랍니다. (임미순 통신원)

유년부
시정각오육으로 학습하고 놀이

금년초부터 유년부에서는 어린이들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정각오를 구성하여 예배 후 시정각오를 실시하고 있다.

주로 그 주일 설교내용을 바탕으로 교사들이 손수 제작한 인형극이나 OHP, VTR 등 영상화면을 보여 주고 있는데 교사와 학생들간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라 아드라는 평을 듣지만 설교내용과 그 주일의 공과내용을 잘 이해하는 데 좋은 효과와 재미는 있다.

매주일 효과있는 시정각 교육을 위해 자료준비로 애쓰시는 시정각 제작팀의 노고에 감사하며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하여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되어 만물하는 유년부가 되기를 바란다. (윤숙희 통신원)

초등부
다음 주일 새 친구 초청전도잔치에
어려움을 초대한다!

이제 초여름으로 접어들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고자 초등부에서 다음 주일에 새 친구 초청전도잔치를 가집니다. 그 동안 잃어버린 양, 장기 결석 학생, 각반에서 1명씩 전도하기 위해 대신자를 정하고 전도할 친구들에게 초청 카드를 보내기도 하며 준비하였던 모든 일들이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잔치를 베풀고자 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 찬양대에서는 우리교회 '하나님의 꽃', 성경 이야기 '작은 예수 착한 예수'로 새로운 난이도를 한층 향상하여 간단한 다과회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미숙 통신원)

연 계 : 1999년 6월 20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어디서 : 복지관 1차 2층
무엇을 : 새친구 초청잔치
어떻게 : 전국 전지처럼
왜 :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 (이미숙 통신원)

중등부
5월 충동원전도행사를 마치고

지난 주일 예배 후 5월 충동원전도행사 결과보고 및 상상이 있었다. 지난 한 달 동안 친구들이 기도하며 전도하기로 작정했던 많은 친구들이 우리 중등1부로 오게 되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알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사를 드린다. 친구들에게 있어서 전도가 행사로서 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 일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이 곧 전도가 되기를 바란다. (김범진 통신원)

중등2부
지각 안하기 운동 벌여

중등2부에서는 예배시간 15분 전에 도착하여 찬양과 기도로 마음의 준비를 하여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지각 안하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예배가 시작된 후에 오는 학생들에게 '다음 주일에는 꼭 8시 50분까지 오세요'라는 도장이 찍힌 주보를 나누어 주면서 주의를 환기시켜 주었다. (심순옥 통신원)

장년3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드리려 야외예배

교사들의 야외예배가 있었던 날, 일기도 화창하여 아침 7시에 떠나는 교사들은 모두가 들뜬 마음으로 차에 올랐다. 달려가는 차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산천조목들이 우리 모두에게 손짓하기를 반복 주었다.

연월의 단풍들이 도착하여 푸르고 넓은 잔디밭에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렸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맑은 공기와 짙은 숲은 나무들을 보며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리려 드려 찬양드리려 주 청용도로 향했다.

유유호호로는 동강을 배를 타고 건너가 단풍의 유예지 청용포에 발길을 옮겨 한양곡을 향하여 완비를 그리워 망향담을 쌓았다는 단풍의 한단의 소리가 들리는 듯 슬픈 사연들이 가슴을 저민다. 굽이굽이 흐르는 동강으로 둘러싸인 청용포를 뒤로하고 문곡이든에 들리 공해없이 맑은 자연 속에서 준비된 점심식사를 즐길 수 있었다.

임진왜란때 고씨들이 피난하여 살아남게 되었다는 고씨들들은 그 기사가 형형색색으로 만들어진 풍류적 석회동굴을 탐을 돌리며 머리를 부딪히며 미끄럼에 주의하며 비좁은 곳을 빠져 나왔을 때는 마치 두들겨 얻어 고치를 절령하였 한양이 찼다. 동강을 타고 우뚝 서 있는 선돌들은 우리들에게 사진찍을 기회를 주었고 아름다운 경치를 뒤로하고 우리들은 차에 올랐다.

매달배는 서로서로 서서서먹하던 동료들이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웃으며, 특히 황한 집사님과 한영숙 권사님의 우리들 모두에게 열만큼을 많이 나누고 웃겨주시는 그 명사시 진행으로 중일 교사들은 주님 사랑 안에서 점점 하나되어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야외예배를 기점으로 더욱 충성되이 여거지는 장년3부 교사들이 되리라 믿는다. 야외예배를 통해 목사님, 장로님, 부가님, 처가장님, 교사들이 모두모두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임미숙 통신원)

1교구
연합구역예배 드려

교구 연합구역예배가 6월 5일 과천 대공원에서 있었다. 경로대상이신 연로하신 분들도 모시고 주님 지으신 세계를 찬양하는 가운데 교구 식구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 준비위원들의 치밀한 준비 속에 전날밤 설치한 '1교구 연합예배'라는 현수막이 우리를 기다려 반겨 주었고 진행위원들의 협력 아래 색색들이 달려 있는 풍선은 동심의 세계로 인도하였다. 이어서 권사님의 지휘 아래 통일된 율동들의 유니파운드 주위를 점 중시하며 여러 가지 경기 속에서도 질서 정연하며 찬양과 더불어 남녀노소 모두 율동하는 모습은 환한탄세와 속에서 지친 영혼들이 정겨운 삶의 일부분을 느낄 수 있었다. 경로대상이신 분들의 풍선타도리기, 보물찾기, 율동게임, 어린 꼬마들의 파자 머미기, 부부 게임, 족구 등 하나님의 경기가마다 웃음과 화합과 우애가 충만히 담겨 있었다. 아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우리는 주님께 연합구역예배가 참 좋았다고 흐뭇하게 하며 감사드렸다. (임통계 통신원)

3교구
내가 먼저 사랑하자

6월 4일 연합구역예배가 선봉공원에서 드려졌다. 찬송가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부르는 교구 식구들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와 전지 능한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여호와의 우리 목자 되시니, 이 푸른 초장, 우거진 숲속, 맑은 공기로 인도하시는 풍성한 은혜 안에 품어 주심을 감사드린다. '형제자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찬양과 아름다운교라는 시편 133편의 말씀처럼 3교구 식구들은 함께 모여서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베풀고 하복과, 갈등을 화해

물 · 매 · 들

과연 빛인가

'빛과 소금'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자. 그것의 절대가치에 비해 우리는 그것의 중요성을 유념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우선 그것을 배제하고는 삶을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절대적이라는 것이고 한편으론 그 말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에 아무런 감동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빛의 본질은 어둠을 밝히는 데 있다. 빛은 세상을 덮고 있던 혼돈의 어둠을 걷어내고 하나님을 지으신 창조주의 신비하고 경이로운 모습을 아름답게 드러낸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빛이 된다는 것은 그리 거창한 일이 아니다. 내가 속한 공간이 나로 인하여 밝아진다면 나는 이미 빛이다.

그러나 교회 식당에서 질서 있게 줄을 서 있는데 누군가 꼬르르 달려와 세침기를 한다면, 주일에 음지를 술책한다면, 화상실을 지지분하에 사용하면 된다. 지하철에서 자라면서 놓고 먼 데 있는 구역식사를 소치려 부르는 등등의 일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둠에 하고 눈물을 저주리게 한다면 그것은 이미 빛이 아니다.

우리가 빛이 되는 일은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원연희 기자)

고, 성령의 힘으로 지어지거나 과정 중이라는 이론적 목사의 설교 말씀처럼 서로를 따돌려 선한 일꾼이다. 지역마다 준비해온 음식을 서로 나누며 이렇듯 집사님의 진행으로 권사님과 함께 콩나르기, 성경퀴즈,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그리고 뛰기 등 즐겁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을 가졌다. 각 전도소에도 가서 속삭어 찬양이 가득 울려 퍼졌다. 이같은 우리의 연합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가치를 무지하는 것이기를 바란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우리의 형제들께라도 이곳에서 아낌없이 삶이 천국에서도 함께 하는 공동체인 것을 인식하여 서로에게 더욱 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가서 내가 먼저 사랑하는 멋진 3교구 식구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백미경 통신원)

8교구

6월 19일 잃은 양 찾기 위한 충동원전도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행당2동과 옥수동 지역에는 새로운 입주자들이 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예전에 믿었던 데 현재 교회를 나오지 않은 낙심자들이 있는가 하면, 계기가 없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심지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기독교 신앙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그들을 주님게로 인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잃은 양 찾기운동을 하고자 한다.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천도의 열정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별히 6월 18일 금요일집회 모은 8교구 식구들이 함께 모여 다음날 전도를 위한 합심기도를 한 계획이다. 그리고 충동원 전도 달인인 19일에는 가호초를 방문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 8교구 식구들의 적극적 참여와 중보의 기도가 요청된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는 지역축제로 전도하여 이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도록은 힘을 쓰신다는 귀한 임명이 일어나리라 기대한다. (8교구 통신원)

